트라이보울 여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여름 주말 아침을 깨우는 트라이보울 예술교육○ 트라이보울에서 꿈꾸고 펼치는 예술 활동

○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공간 트라이보울은 7월부터 여름을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트라이보울

tribowl art club

아트클럽

가족 클럽

움직이는 그림책

○ 7월 18일, 19일 양일간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워크숍 ‘가족 클럽-움직이는 그림책’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음악과 영상을 활용한 공감각적인 책 읽기와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

하고 만들어가는 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신체 부위를 이용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표현력을 키우고, 몸과 마음에 집중하며 가족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비가와 (솔미도)
하늘위에서(도레미파솔)
연못가에 빗방울이
(솔솔솔미 솔솔솔미)
통통통
(미레도)
ABACADAEA

○ 한편,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꿈꾸는 아지트 꿈꾸라’(이하 꿈꾸라)‘ 가 진행된다. ‘꿈꾸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청소년 문화예술 감상교육 프로그램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었다.

○ 트라이보울 관계자는 “건강하고 즐거운 문화예술활동으로 친구, 가족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트라이보울은 코로나 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참여자 간 거리를 확보하고 입장 시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안전한 활동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 운영할 예정이다.

○ 트라이보울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일정 및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및 예약 | 032-833-5993 / pjj4020@ifac.or.kr / www.tribowl.kr